

방위산업 경영실태 및 경영개선 효율화 방안



白永勳 / 한국방위산업협회장
KID원장, 경제학 박사



최근의 경제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걸프전의 영향, 국제통상마찰의 가중 및 EC지역 통합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경제의 앞날을 어둡게하고 있습니다. UR등 개방화, 자율화 압력의 가중으로 우리경제의 개방화, 국제화는 더욱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약한 국내산업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과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방위산업도 재정립을 모색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30여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지속하여 오늘날 1인당 GNP 5천5백불, 연간 6백50억불의 수출국가로 부상하면서 신생공업국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경제는 1980년대 초의 세계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80년대 중반에 이미 지난날의 어려웠던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하고 흑자기조(黑字基調) 시대의 새로운 성숙단계 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는 흑자시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개방과 자본자유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으며, 해외 투자기반의 조성을 위해 정부의 경제시책이 크게 전환되었습니다.

지난 1990년 한해 동안의 경제 성장율은 9%로서 비교적 높은 성장율을 나타냈으나,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20억불(약 1조4천억원)에 달하였고, 최근의 경제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걸프전의 영향, 국제 통상마찰의 가중 및 EC지역 통합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UR등 개방화, 자율화 압력의 가중으로 우리경제의 개방화, 국제화는 더욱 급속하게 진전되고, 이로 인해 취약한 국내산업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대내적 경제환경에서도 최근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제조업 부문의 애로가 가중되어 우리경제의 앞날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경제는 수출부진현상에 제조업의 경기침체로 기업투자의욕이 감퇴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입증가와 노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수출경쟁력의 약화는 심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제의 대내외적 환경여건과 경제 전환기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과 내실화를 위해, 우리 방위산업도 재정립을 모색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 추진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적정수준의 방위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지원 시책이 공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방위산업이 전체 제조업생산에 기여한 효과는 3.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 공업국가로서의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산업의 구조고도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기술혁신과 품질관리개선 및 규격 표준화 등 기술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킬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경영실태

우리나라 기업(제조업)의 1990년도 경영실적은 전반적인 경기상승에 따른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수출의 점진적인 회복, 노사분규의 진정으로 매출액 증가율('89년 : 8.6% → '90년 : 19.6%)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비용의 증가와 환율상승에 따른 외환차손이 발생되어 수익성이 낮아지고, 주식발행의 부진 및 외부차입금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그동안 수익성 저위(低位)와 지속적인 시설투자에 따른 외부차입금이 증대되어 재무구조가 제조업보다 비교적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에서 조사 분석한 1990년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보고서에서 경영실태분석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지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 규모면에서 보면 연중 방산업계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89년)의 8.6%에서 19.6%로, 방위부문이 8.0%에서 22.9%로 높게 성장하였습니다.

재무구조(안전성) 면에서는 자기자본 구성비율이 24.2%로 제조업의 27%에 비해 낮은

우리 방위산업의 실정에 입각하여 불때 정부는 국가경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일환으로 확고한 정책이념을 재정립해야 하고, 새로운 국가경제 전력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하며,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은 물론 민간기업도 스스로의 경영 전략을 새롭게 정비하여 국제경쟁에 대응할수 있도록 긴 안목에서의 대응태세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상태에 있습니다.

수익성 및 활동성 측면에서 방산업계의 매출액 경상이익율은 1.2%의 저조한 실적으로, 이는 높은 賣出原價率('90년 88.4%)에 금융비용(6.4%) 부담이 과중한데 있습니다.

또한 총자본 회전율에서도 제조업의 0.96회전에 비해 0.8회전으로, 매출액 신장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 면에서 효율화를 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防産부문에서의 매출액 경상이익률(經常利益率)은 '89년 -6.4%, '90년 -1.4%로 계속적인 적자가 누증(累增)되고 있어 경영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부문의 총 투자액은 현재까지 〇조〇천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매출액은 〇조〇천억원으로 자산회전율(資産回轉率)이 0.6회전에 불과한 실정에 있어 방산부문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능력이 저조한 상태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총자본 투자효율과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각각 20.0% 및 15.5%로 제조업의 25% 및 18%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설비비용율(가동율) 측면에서 불때도 우리나라 방산업계의 가동율은 제조업의 평균 가동율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동율이 낮은 근본적인 주요 원인은 지속적인 시설투자 증대에 따른 적정매출액 증가, 즉 투자자본에 의한 적정 매출액에 비해서 수요부족 등으로 매출액 달성이 부진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영 실태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시장의 한계성 및 공장가동율의 저위, 기업채산성의 악화 등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총체적 경제위기이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지의 퇴화와, 민간 방위산업체의 경제성(수익성) 결여 등에 따른 사기저하로 방위산업의 침체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방위산업 경영개선 효율화 방안

방위산업 실정에 입각하여 볼때 정부는 국가경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일환으로 확고한 정책이념을 재정립해야 함은 물론, 일괄성(一括性)있는 정책수단의 개발과 각 부처간의 협조체제 위에서 효과적인 육성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산업계의 최고 경영자는 국가적 위치와 경제적 기여효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오로써 우리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업환경 변화에 순응하면서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할수 있도록 자생적인 경영풍토를 쇄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국가경제 전력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하고,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은 물론 민간기업도 스스로의 경영전략을 새롭게 정비하여 국제경쟁에 대응할수 있도록 긴 안목에서의 대응태세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방위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경영개선, 효율화를 위해서는 적정생산규모, 생산체제, 적정조달가격의 확보 및 제도개선등 경영기반구

축 및 재정비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정가동율(생산규모) 확보측면에서 시설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장기물량의 조정대책과 독자무기개발 생산 및 구성부품·수리부품등의 개발생산에 주력해야 하며, 민간주도의 콘소시엄(Consortium)으로 수출진흥을 활성화하여 수요창출을 적극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생산체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출발 당초부터 복수업체 선정 및 투자중복과 그간의 지정에 따른 역할분담에 의한 횡적인 물자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으로 전문 계열화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방위산업 구상에 부합되고 생산체제의 구조를 고도화할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상호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위산업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메트릭시스템(metric system)」으로서의 전문 계열화로 재정비, 강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연구개발체제 구축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행 선진국의 무기체계 및 고도기술 이전에 장애요소가 놓여있기 때문에 제한된 국방가용자원으로 효율적인 군사력을 건설 하기 위해서는 국방연구개발 정책을 검토 보완하여 관·민(산·학·연)연구개발 협력체제 확립으로 역할 분담을 통해 개발력 및 기술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넷째, 업계의 자율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현재 방산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자금운영의 건실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타당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무리한 기업확장을 지양하고 재무건전화를 위한 업계자체의 경영합리화 쇄신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과 원가절감 의식을 체질화하고 비경제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적정 조달가격 확보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발전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금액의 조정제도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물가변동, 설계 및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조달물량(가동율)을 고려한 원가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가동율 변동에 따른 고정비 부담의 적정보상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원가 보상을 위한 조달기금조성 및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방위산업에 관련한 계약 및 원가계산제도의 보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원가절감보상 계약제도가 시행될수 있도록 제도의 발전과 이윤율적용 등의 원가계산 기준제도의 발전 그리고 감손율(減損率) 책정(산정)제도에서도 일정시점에서의 품목별 감손율을 확정하여 개발의욕 및 개발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금융, 세제, 계약의 특례등 각종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방위산업은 軍 수요물량의 제약, 신제품 개발 및 방산수출부진으로 경영애로에 봉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비의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방식 등 세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방산육성기금중 연구개발 지원자금을 대폭 증액 조정하거나, 순수 연구개발 지원기금의 신설 운용과 방산시설자금의 대출 등을 할수 있도록 각종 제도 및 절차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맺는 말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대한 지난날의 경제적 성과를 되돌아보고,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은 물론 오늘날 우리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볼때, 민간기업도 이젠

우리는 과거의 세계 역사를 돌이켜 보고, 급변하는 오늘의 세계정세를 바라보면서, 우리 방위산업이 국가산업의 전략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운용될수 있도록 금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 어떤점을 개선해 나갈것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산기술이 국가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와 민간기업의 생산기술에 접목되어 지대한 기여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의 경영전략을 새롭게 정비하여 국제 경쟁환경에 대응할수 있도록 긴 안목으로 대응태세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최근 국내외 정세는 걸프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세계질서의 재편현상, 소련 및 동구권의 민주화에 따른 냉전체제의 붕괴, 군비통제의 대두, 남북한 대화 및 UN 동시가입 등으로 환경여건이 그 어느때보다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민계층에서는 평화공존책이 마치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인식하고,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착각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고, 급변하는 오늘의 세계정세를 바라보면서, 우리 방위산업이 국가산업의 전략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운용될수 있도록 금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 어떤점을 개선해 나갈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위산업이 지니고 있는 기술개발영역이 다양성과 축적기술의 활용면에서 국가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와 민간기업의 생산기술에 접목되어 지대한 기여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